

2002년 설치 서부지역 공공하수처리 간이중계펌프장 공유수면법 위반 파장

## “철거하라” vs “하수 차질… 면제해달라”

제주시, 도상하수도본부에 원상회복명령 ‘초유 사태’  
철거 대상 펌프장 16개… 허가 면적의 2배 이상 초과  
시, 전문기관 대상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 의뢰 계획

제주 서부지역 공공하수처리 시설  
십수 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을  
어기고 무단 설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제주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  
태가 벌어졌다. 원상회복명령은 그  
동안 무단 점용·사용한 공유수면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고, 문제의  
불법 시설을 철거하라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는 이번 사  
태의 경위와 향후 쟁점에 대해 연  
속 보도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시는 올해 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본부)를 상대  
로 서부지역 간이중계펌프장 시설  
들이 당초 허가 면적을 어기고 공  
유수면에 불법 설치됐으며 원상회  
복명령을 내렸다.

간이중계펌프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를 지표 면까지 끌어  
올려 정화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처  
리장에 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지  
대가 낮은 해안가 지역의 경우 고  
도 차이로 인해 각 가정 하수를 하  
수처리장에 직접 보낼 수 없어 이  
같은 펌프 시설이 필요하다.

철거 대상은 서부하수처리장이  
관할하는 16개 모든 간이중계펌프

장 시설들이다. 간이중계펌프장 1  
곳 당 규모는 작게는 200여㎡에서  
크게는 500여㎡로, 제주시 애월읍  
을 비롯해 한림읍, 한경면, 금능리  
등 해안가 마을에 집중 설치됐다.

본부 측은 간이중계펌프장 허가  
번호가 ‘2002’로 시작되는 점을 미  
뤄 2002년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간이  
중계펌프장은 공유수면 2500여㎡  
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  
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설치 면  
적은 이보다 2배 이상 넓은 6200여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 관계자는 “주로 펌프장과  
연결된 차질관로(하수를 모아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관로)들  
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다와 해안가를 뜻하는 공유수

면은 국가 소유의 국유 재산으로,  
이 곳에서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불법으  
로 판명된 인공구조물 뿐만 아니라  
기초 공사를 위해 사용된 흙, 돌 등  
을 모두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  
구하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  
다. 제주지역 내 공유수면관리청은  
양 행정시다.

도내서 공공기관이 특정 공공기  
관에게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는 건 전례가 없다. 또  
서부 해안가 마을 하수 처리 공정  
의 핵심인 중계펌프장 시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면 하수 처리에도 심  
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본부 측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달 27일 제  
주시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달  
라고 신청했다. >> 2면으로 계속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희망2026나눔캠페인 마무리… 44억6500만원 모금 이웃사랑 뜨거웠다… 온도탑 103.3℃

퐁퐁 얼어붙은 추위에도 이웃을 향  
한 도민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희  
망2026나눔캠페인이 성황리에 마  
무리됐다.

>> 사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인, 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  
까지 진행된 ‘희망2026나눔캠페인’  
이 모금액 44억6500만원, 사랑의  
온도 103.3℃를 기록했다고 2일 밝  
혔다.

올해는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활발한 기부가 이어졌다. 1년간 독  
서한 분량에 맞춰 기부한 초등학교  
부터 직접 모금활동을 해 성금을  
모은 사회복지기관, 쌀과 성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한 봉사단체, 1년  
동안 모은 동전과 지폐 봉투를 두  
고 간 익명의 기부자 등이다.

또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7억5000여 만원의 성금

을 기탁했고 제주농협은 제주농협·  
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 기금과  
하나로마트 공익기금을 통해 약 5  
억7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또 제  
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성금 9000여  
만원을 기부하는 등 도내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과 위기  
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아동·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사용될 예  
정이다.

강지인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  
도 103.3℃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  
졌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  
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제  
주를 만드는 데 책임 있게 사용하  
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활짝 핀 홍매화에 맺힌 빗방울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변에 활짝 핀 홍매화 꽃잎에 빗방울이 맺혀 있다.

강희만기자

‘겨울가뭄’ 비상, 강수일수도 10년 새 최저… 4면 /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연초부터 ‘위축’… 6면



## 오랜 재배 경험과 신뢰로 키운 제주산 만감류

제주산 만감류는  
맛·품질·신선도에서  
수입 만다린과의 경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품질기준 강화와 미숙과 사전 출하 차단,  
직거래 확대를 통해  
제주산 만감류의 가치를 지켜갑니다.

품질로 선택받는 제주 만감류,  
농가·소비자·제주시가 함께 만듭니다.



Jeju 제주시